

## 배움의 실천과 청년의 패기로 목장경영 자신감 생겨



필자는 모 유업체 검정원으로 3년간 근무한 이후, 해당 유업체의 쿼터 250kg를 받아 부모님의 축사 일부를 임대하여 올해 3월부터 작은 규모로 목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유한상**  
경기 김포 푸르내목장

목장을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서 운영하다보니 회계업무에서 미숙함이 느껴졌고,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다.

평소에 무엇이든 배워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마침 이번에 좋은 교육이 있다고 알려주셨다. 회계교육 외에도 대사성질병과 번식관리, 축사시설관리 등 다양한 내용의 과목이 있어 동생과 함께 청년낙농인 교육을 신청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님으로부터 국내와 해외 낙농산업 동향을 들으면서 잘 몰랐던 정부대책과 낙농산업 전망, 앞으로도 오랫동안 목장을 운영하려면 후계낙농인의 입장에서 무엇에 집중해야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경영교육 시간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목장을 가상으로 운영해보는 조별활동이 있었는데 목장규모가 커질수록 신경써야할 부분도 많아진다는 것과 경영이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교육을 통해 회계의 기초를 배웠으니 배운 것을 토대로 손익을 잘 따져나간다면 더 나은 목장을 일궈내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별로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낙농선배님들뿐만 아니라 또래 낙농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서 교육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질병관리 시간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목장경력이 많은 선배님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미 알고 있었던 질병과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질병까지... 참 많기도 했다. 현장에서 사소하게 여기는 질병도 목장수익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한순간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내내 품었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청결과 정리정돈처럼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다. 착유우 7두, 건유우 3두, 육성우 8두의 소박한 규모로, 현재는 목장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새내기 목장주이다보니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나중에는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협회와 다른 곳에서 하는 교육이 있으면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배워서, 빠르게 변하는 낙농환경에 미리미리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 낙농산업은 FTA로 인해 저가의 수입유제품에 국내시장을 빼앗기고 있고, 쿼터가격은 불안정하며, 신규농가는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낙농정세가 불안하다보니 후계낙농인으로서 필수불가결한 투자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소 한 마리로 시작해 지금까지 목장을 이어오신 아버지를 롤모델 삼아 젊은이의 패기로 최선을 다해서 목장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교육을 추진하고 계획하신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분들과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점점 더 확대되어 더욱 많은 낙농가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